

## 알버타, 역대 가장 많은 의사 인력 확보

2026년 7월 23일 [미디어 문의](#)

알버타는 의사 영입 및 유지 분야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으며, 통계에 따르면 현재 주 내 의사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

알버타 의사외과대학(College of Physicians & Surgeons of Alberta)이 새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, 현재 알버타의 정식 등록 의사 수는 1만 4,1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,226명(약 10%) 증가했습니다. 이는 전년 대비 의사 수 증가 폭으로는 역대 최대이며, 알버타의 의사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.

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의사들이 알버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수치는 보건의료 인력 유치와 유지를 위한 우리의 투자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, 알버타 전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

*아드리아나 라그레인지(Adriana LaGrange) 병원 및 수술보건서비스부 장관*

지난 1년간 알버타의 모든 보건 구역에서 의사 수가 증가했으며, 가정의학과와 전문의 분야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이러한 의사 수 증가세는 캘거리와 에드먼턴뿐만 아니라 노스(North), 센트럴(Central), 사우스(South) 등 주 전역의 보건 구역에서도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주 전역의 의료 역량이 강화되고 있으며, 알버타 주민들이 적시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의사 수의 증가로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의사들은 워크인 클리닉, 긴급진료센터 및 기타 지역사회 기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, 대도시의 많은 클리닉에서는 당일 진료 예약이 가능하고, 일부 클리닉에서는 지속적인 진료를 위한 신규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.

더 많은 의사들이 알버타를 선택하면서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협력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더 많은 의사를 양성하고, 영입하며,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."

*저스틴 라이트(Justin Wright) 일차 및 예방보건의료서비스부 장관*

알버타 정부는 의사의 영입과 유지,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지원과 알버타 의사회(Alberta Medical Association)와의 2022~2026년 기본협약에 따라 지난 6월 발표된 의사 보수 인상이 포함됩니다. 의사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와 의료 서비스 선택권의 확대를 바탕으로, 주 전역의 알버타 주민들을 위한 더욱 탄탄하고 접근성이 높은 보건의료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.

## 간략한 정보

- 6월 30일 기준 알버타의 정식 등록 의사 수는 역대 최대인 1만 4,156명을 기록했습니다.
- 지난 1년간 알버타에서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약 510명 증가했습니다.
- 현재 알버타에서는 1,000명이 넘는 전담 일차의료진과 전문간호사(Nurse Practitioner)가 신규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.
- 알버타 주민의 88% 이상이 전담 일차의료진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- 지난 1년간 캘거리에서는 의사가 446명, 에드먼턴에서는 356명 증가했으며, 노스·센트럴·사우스 보건 구역에서도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.

- 2026년 예산안은 2026~27 회계연도 의사 영입, 양성, 보수 및 역량 개발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77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. 이는 2025년 예산안보다 14억 달러 증가한 규모입니다.
- 지난 6월 알버타 정부는 알버타 의사회와 체결한 2022~2026년 기본협약에 따라 의사 보수를 1억 7,230만 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
## 관련 정보

- [알버타 의사외과대학 분기별 통계](#)

## 미디어 문의

### 카일 워너(Kyle Warner)

587-873-3087

병원 및 수술 보건서비스 담당 대변인 직무대행